

# 회문산마을 어촌인성학교 지정

순창군 농촌 체험 통한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창의적 사고 함양 위해

순창군 회문산마을 권역이 '2016 농어촌인성학교'로 지정돼 다양한 농촌 체험은 물론 아이들의 인성까지 길러 주는 교육체험 장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가 선정한 2016년 농어촌인성학교 지정 사업에서 회문산권역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어촌인성학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가 농촌 체험을 통한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과 창의적 사고를 함양하기 위해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과 마을 권역을 인성학교로 지정하고 육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인성학교 지정은 교수, 전국학부모 운영위원회 관계자 등 10명 내외의 심사위원을 위촉해 안전시설 확보 및 인성프로그램 기획, 운영역량 등을 중심으로 현장평가를 강화

하는 등 선정에 내실을 기했다.

순창 회문산 권역은 역사 문화적 배경이 동일하고 인근 주민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구립면 마흥, 신기, 오룡 등 10개 마을을 연계해 지난 2007년부터 다양한 권역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회문산과 강천산이 둘러싸고 있는 지형으로 청정순창과 고추장 마을 등의 자연친화적 이미지의 어머니가 풍부하고 도농교류센터, 두부체협장, 가마솥 체험장 등 체험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또 전봉준 장군 피체지 이자 6.25당시 빨치산 활동이 활발했던 곳으로 역사적 유적을 스토리텔링화해 학생들의 살아 있는 교육장으로도 활용하는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예절체험, 전통놀이체험 등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한 자격증 소

지자들을 보유해 특색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군은 이번 농어촌인성학교 지정을 계기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과 농어촌 체험형 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이번 회문산권역의 농어촌인성학교 지정은 계기로 순창만의 특색 있는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더불어 아이들의 정서 함양과 인격 형성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며 "농촌마을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도시 관광객이 찾고 상상발전 할수 있는 선순환 성장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FTA 피해보전직불금 보상금 지원

재산상 피해를 입은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 3품목 59농가 대상

임실군은 201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보상의 일환으로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재배농가에 총 16억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재산상 피해를 입은 품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난 5월 선정·고시(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돼 농가로부터 신청된 3가지 품목(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에 대해 군·읍면사무소 담당자의 현지조사와 신청농가의 이의 신청을 거쳐 최종 선정된 59농가(노지포도 2농가, 시설포도 4농가, 블루베리 53농가)를 대상

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노지포도의 경우 지난 2013년 5월 1일(한·터키 FTA)이전, 시설포도의 경우 2014년 12월 12일(한·호주 FTA)이전, 당근과 블루베리의 경우 2012년 3월 15일(한·미국 FTA)이전부터 고시일까지 해당 영농에 종사한 농가(해당품목 1,000㎡이상 경역)가 해당된다.

보상의 종류는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으로 나누어지며, 폐업지원금 대상 농가는 향후 5년 동안 해당 품목(3가지)의 재배가 불가능해, 부분폐업 대상농가는 향후 5년 동안 해당품목의 면적 및 수량 증대가 불가

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전역 국비로서, 피해보전직불금(59농가, 2억 3,000만원)은 2016년 12월 20일경 전액 지급할 계획이며, 폐업지원금(41농가, 14억원)은 폐업절차 완료 확인 후 연도별(지급률:2016년 74%, 2017년 26%)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하면서, "특히, 폐업농가 시설포도(2농가, 0.4ha) 블루베리(부분폐업 포함 39농가, 8.1ha)의 경우 당해 작물에 대해 추가 지원이 없기 때문에 신청한 영농계획 및 타작물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동부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 협의회

대선공약사업 발굴사업 등 논의 자리 마련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제2차 정기총회가 8일 남원시청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통해 추진하는 동부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 및 동부권 대선 공약사업 발굴사업 등에 대해 서로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동부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시군 협의를 거쳐 국토연구원

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해, 지난 10월 13일 국토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해 이번 정기총회에서 착수보고를 갖게 되었다.

동부권 단체장들은 동부권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산, 덕유산 등 특화 자원을 잘 활용하고 부족한 교통 인프라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발전을 이룩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동부권 지역의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동부권 6개 시군에서 향후

추진할 발전사업, 대선 공약사업에 대해 서로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공역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동부권 6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대선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서로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장이 이환주 남원시장은 "그 동안 구호에만 그친 동부권 균형발전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 협력하고 단합하여 반드시 동부권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군,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총력'

관로 마을안길까지 확장 계획

임실군은 서부권 지방상수도 3개(강진, 덕치, 청용) 지역의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오는 2018년 12월까지 59억원을 투입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부권 3개면은 섬진강댐 하류지역

에 지난 2006년 12월 강진정수장을 설치해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수질오염이 심하고 수혜나 가뭄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주민 불편이 컸다.

군은 국비 41억원과 군비 18억원을 투입해 지방상수도 미 공급지역 마을의 간이상수도를 대상으로 배수관로 21.5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5개소 등을 비롯해 관로를 마을안길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생활용수 부족 문제

를 해소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군민보건 위생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주거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수도 미급수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소규모 수도시설을 지방상수도 수준으로 향상시켜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 전문이동봉사 진행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소장 김종균)가 지역 어르신과 함께하는 전문이동봉사를 진행했다.

8일 공음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박우정 군수, 이호근·장명식 도의원, 봉사단체 관계자와 지역 어르신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함께해요 희망고창'을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전문이동봉사에서

는 어르신들의 흥을 돋우는 문화공연과 의미용, 네일아트, 의료봉사, 우울증상담, 음료봉사 등이 진행됐다.

또 어르신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고 이웃사랑을 느끼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번 행사는 사)동학문화재단, 공음면민회, 선운산농협, 공음가족복지회, 공음면사무소, 신나종합문

화예술공연단, 여성자원활동센터,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도립고창노인요양병원, 고창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도 참여해 후원과 재능나눔에 동참하며 자원봉사활동에 도움을 줬다.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 김종균 소장은 "앞으로도 행정과 기관, 단체가 함께 연계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순창군, 창작 오페라 '학동엄마' 공연

11일 향도회관에서... 엄마의 헌신적인 희생 재조명

순창군이 오는 11일 향도회관에서 우리시대 어머니의 애환을 그려낸 '창작 오페라 학동엄마'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혀 군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 공연은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순창군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행사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복권위원회가 후원한다.



창작 오페라 '학동엄마'는 광주 동구 학동의 지역적 이야기를 소재로 평범한 여성이 9남매 아이들의 엄마가 되고,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사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키워낸 여성상을 재조명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특히, 전쟁과 지독한 가난, 고단한 시집살이, 남편의 배신 등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정성과 사랑으로 자식들을 키워낸 엄마의 헌신적인 희생의 고귀함과 끝없는 사랑의 감동을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 공연은 순창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수준 높은 오페라 공연으로 군민들의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자율방범대, 4대약 근절 결의·한마음대회

범죄예방 결의 다짐

임실군자율방범연합회(대장 김수중)는 8일 군민회관에서 '4대약 근절 결의대회 및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과 각 지대간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범죄예방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심민 군수를 비롯해 한완수 도의원, 유성남 전북도자율방범협의회장 및 읍·면 방범대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뤘다.

특히 그동안 자율방범 활동에 헌신

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덕우 덕치면대 대원 등 총 9명의 대원들이 도지사, 군수, 경찰청장 등의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여받는 영예를 안았다.

김수중 대장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모든 대원이 하나되어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민 군수는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밤에는 군민의 안전을 위해 열악한 환경과 피로를 뒤로한 채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대원들의 노고 덕분에 3만여 군민의 안전한 삶이 보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찾아가는 희망복지 상담실, 인월시장 확대 운영

5일장 찾아가는 희망복지 상담실은 공설시장 내 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인월시장으로 확대 운영 추진하기로 하여 8일 첫회를 실시, 시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15년부터 남원시 주민복지과와 관내 주요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이 연합하여 시장을 오고가는 시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있는 시장 내 쉼터에서 복지상담, 의료상담, 일자리상담, 주거상담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저소득층에 게 맞춤형 통합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매우 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운봉, 인월, 아영, 산내 4면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인월시장은 고령

수로로 1.5~2m 간격으로 깊게 설치해 습해와 동해를 예방해야 한다.

늦은 파종 시 겨울에 동사하거나 분얼 수 감소로 수량이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해 만파보다는 봄 파종을 유도하고 시기가 늦어졌을 경우 종자량을 20~30% 늘려 파종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동계작물 재배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동해, 습해, 가뭄피해, 쓰러짐 등에 대한 재해관리 및 기술지도에 노력하겠다"며 "안정적인 농산물 재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군, 동계작물 파종 현장기술지원 강화

임실군은 동계작물 파종현장기인 오는 10일 전에 마비지 파종을 위한 농가 홍보 및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 잦은 강우로 벼 수확이 늦어지며 답리작 동계작물 파종이 지연됨에 따라 군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현장 방문을 통해 파종현장기 전에 파종을 당부하고 있다.

상습적으로 동해가 발생하거나 추위에 약한 품종, 습해를 받은 포장은 마른 볏짚 300kg/10a정도를 5~10cm 길이로 잘라서 덮어주면 보온, 보습, 잡초발생 억제 등의 효과가 있으며 배

수로를 1.5~2m 간격으로 깊게 설치해 습해와 동해를 예방해야 한다.

늦은 파종 시 겨울에 동사하거나 분얼 수 감소로 수량이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해 만파보다는 봄 파종을 유도하고 시기가 늦어졌을 경우 종자량을 20~30% 늘려 파종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동계작물 재배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동해, 습해, 가뭄피해, 쓰러짐 등에 대한 재해관리 및 기술지도에 노력하겠다"며 "안정적인 농산물 재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로컬푸드



# 독립운동대표 박준승 선생 제례행사

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의 한분인 자암 박준승 선생의 넋을 기리기 위한 제례행사가 청용면 소재 박준승 선생 추모공원에서 거행됐다.

임실군과 (사)독립운동가 박준승 선생 기념사업회(이사장 홍봉성)는 심민 군수를 비롯해 신준태 국립임실호국원장, 유족 및 보훈단체장, 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일 개최했다.

특히 청용초등학교 및 중학생 50여명이 참여해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은 "애국지사의 숭고한 삶을 새롭게 인식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살려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962년 박준승 선생을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추서했으며, 군과 기념사업회는 넋을 위로하고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례행사를 매년 11월 개최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고창경찰, 공사장 절도예방활동

고창경찰서(총경 전순홍) 부인파출소에서는 공사장을 방문하여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각종 공사 자재 및 장비 등에 대한 도난 예방을 위해 자위방범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2019년 초 준공 예정인 관내 농수로 배수개선공사가 착공되어 공사 자재 및 시설을 대상으로 절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공사장에 대한 주·야간 순찰 강화 및 공사장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CCTV 설치, 야간조명시설 등 자위방범시설을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등 공사장 절도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평희 소장은 "공사장 절도예방을 위해 공사 관계자는 자위방범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은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민경협력 강화로 공사장 절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관촌면 자봉센터, 김장나눔

임실 관촌면자원봉사센터(회장 박순남)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독거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관촌면 독거노인 50여명과 경로당 10개소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회원들이 배추 500포기를 직접 담갔다.

또한 가정까지 직접 배달하며 동절기에 결식 우려가 높은 독거 어르신의 건강관리와 식생활 먹거리 나눔을 통해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돕는데 앞장섰다.

박순남 회장은 "정성과 땀으로 버무린 김치가 어르신 밥상에 올랐다면 오늘도 고단함은 보람이 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